

## 다원예술 작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작품 「바이올린 페이지즈」, 「마담 플라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을 중심으로 -

남선희\*\* · 조은숙\*\*\*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다원주의와 다원예술의 개념과 특성 | 참고문헌        |
| III. 다원예술 작품에 나타난 특성   | ABSTRACT    |

### I. 서론

인간과 사물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상과 함께 예술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창작 환경과 작업 형태의 변화로 인해 현 시대의 예술은 더 이상 장르 내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인문학 등과 같은 타 학문과의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험적인 창작 작업의 증가는 기존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작품으로 창출<sup>1)</sup>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실험적인 창작 작업에 대한 개념은 발생 초기에 나타난 전통의 해체에서 발전되어 파괴의 예술까지 수렴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술 사조의 흐름 가운데,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현 시대대의 예술 작업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헤아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원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2001년 ‘다원적인 예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었고, 2005년 ‘다원예술소위원회’가 문예위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면서 ‘다원예술’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원예술소위원회는 다원예술을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 예술, 복합장르 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 예술, 문화 다원주의적 예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수, eschod@hanmail.net

1) 조은숙, 남선희(2019), 무용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그룹 E.A.T.에 관한 연구-머스 키닝햄, 스티브 팩스톤,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3(1), p.187.

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예술”<sup>2)</sup>로 정의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퍼포먼스, 무용, 연극, 사운드, 영상 등 전 장르의 경계를 초월하는 예술 작품들을 엮어 ‘다원예술’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아시아권의 다원예술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포커스’가 기획되어 연간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원예술의 개념은 시각예술·공연예술·타 장르 학문이 총 망라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범주와 정의의 모호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념 정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의 실재에 대한 탐구는 예술이라는 언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원예술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다원예술 작품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다원예술 작품 중에서도 무용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연구함으로써 다원예술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용 장르에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원예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원예술 작품으로 소개된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바이올린 페이즈(Violin Phase)」, 보슈라 위즈겐의 「마담 플라자(Madam Piazza)」와 유하 발케아파·타이토 호프렌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을 선정하여 다원예술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안느 테레사의 작품 「바이올린 페이즈」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sup>3)</sup>는 약 3편이며 주로 그녀의 미니멀리즘적 안무 성향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사상과 표현기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 작품 「마담 플라자」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선행된 연구들은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다원예술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원주의와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 작품에 나타난 다원예술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II. 다원주의와 다원예술의 개념과 특성

오늘날 한국의 예술은 예술의 최고 가치로 여기던 미(美)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비틀거나 배제하여 다른 시각과 다른 접근으로 미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르 간 융·복합 작업으로 인해 기존의 장르로는 구분할 수 없는 예술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2) 우주희(2007),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94.

3) 신창호(2018),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상징적 의미 해석: 이분느 레이너, 루신다 차일즈, 안나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 로이드 뉴슨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운선(2015), 안네 테레사 데 키어스매커의 미니멀리즘적 작품에 나타난 무용과 음악의 관계 연구: 《파세(Phase, 1982)》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준옥(2013), 현대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안느테레사 케어스매커의 작품 [Phase]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더 나아가 일상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 즉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 시대의 예술 상황을 철학자 아서 단토(Arthur C. Danto, 1924)는 ‘다원주의’로 규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근거로 “예술의 종말”을 주장하였다.<sup>4)</sup> 그가 논하는 예술의 종말은 예술의 목표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한 시대의 내러티브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장민한은 단토의 예술종말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서구에서 예술의 개념이 출현한 이래 1960년대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역사를 발전하는 거대한 내러티브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내러티브가 종말에 이르렀고 이제는 “역사-이후”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이후”의 예술, 즉 종말 이후의 시기의 예술은 더 이상 가야 할 특정한 내적인 방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의 예술이라고 진단한다. 이 시기가 바로 무엇든지 예술이 될 수 있는 시기, 즉 다원주의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예술의 종말 이후의 시대로 정의되는 현재의 예술은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역할을 지닌다. 과거의 예술이 미·진리·조형성 등을 추구하며 이를 작품에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현재의 예술은 개인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양식으로도 존재한다. 즉 기존의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예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작품 자체에 입각하여 고유한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 시대가 향하고 있는 다원주의(Pluralism)는 미국의 권위있는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Dictionary)에 1818년 처음 등재된 용어로, 초기에는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되어 ‘둘 또는 그 이상의 교회를 겸해서 맡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점차 추상적·이론적 개념으로 발전되어 ‘다원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나 상태’, ‘궁극적 실재가 여럿이라는 이론’으로 풀이되었고, ‘다양한 민족·인종·종교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의 상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가치관으로 확산되었다. 이중 국내에서는 궁극적 실재가 여럿이라는 이론이 다원주의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sup>6)</sup> 보편적으로 일원주의<sup>7)</sup>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다원주의는 하나의 주제나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 혹은 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다양하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는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개의 해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근대의 자유주의<sup>8)</sup>와 20세기 전반의 프래그머티즘<sup>9)</sup>,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

4) A. C. Danto(2009), *The End of Art: A Philosophical defence*, *History and Theory* 37(4),.

5) 미학대계간행회(2007), 『미학대계 제3권-현대의 예술과 미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269.

6) 김진엽(2012), 『다원주의 미학-자유로운 예술, 열린 비평』(서울: 책세상), p.9.

7) 일원주의란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교적 진리관, 철학적 존재론, 또는 사상 등이 서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전개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실재나 참된 인식, 혹은 하나의 올바른 기준 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일원주의”, 『원불교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573&cid=50765&categoryId=50778>, 2019. 11. 1.>.

8) 자유주의란 16-18세기 영국에서 형성된 사회관으로, 대표적인 사상가 밀(John Stuart Mill)은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면적 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유(양심, 생각, 감정, 의견, 주장), 개인의 기호를 즐기고 희망을 추구할 자유, 자율적인 모임 결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된다. 존 스튜어트 밀(1859), 『자유론』, 서병훈(역)(서울: 책세상, 2005), p.23.

9) 프래그머티즘이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형성된 사회관으로, 실용주의라고도 불리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내포되어있다. 또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진리나 지식 혹은 객관성 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절대적인 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래그머티즘”, 『철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892&cid=41978&categoryId=41985>, 2019. 11. 1.>.

성이 지닌 차이를 인정하며 다원주의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모더니즘을 통해 형성된 고급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예술장르 간의 폐쇄성에 대한 도전, 학생·여성·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운동·전위예술·해체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은 점차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 현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즉 단일한 기준을 거부하고 다수의 동등한 기준을 인정하는 폭넓은 태도로써 다원주의는 특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철학·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절대적 기준을 거부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의 기준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궁극적 가치개념을 부정하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모든 개별원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수 있다.<sup>10)</sup> 다원주의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다양한 학문의 방법론을 제휴하여 연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학문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방법론이 생성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간학문(interdisciplinarity)적 경향과 접목되는 지점이 넓다.<sup>11)</sup>

다원주의 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다원예술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예술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다원예술의 등장은 개념 정의의 문제와 함께 정의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질문들을 양산해냈으며, 예술 소재의 파열, 예술 공간의 해체와 재발견, 예술 매개 경로의 재구축 등이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미학의 고리로 내세워졌다.<sup>12)</sup> 심도 있는 융·복합 작업을 이루는 다원예술의 특성에 따라, 작품은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이는 다원예술의 중점이 각 장르의 요소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원예술은 다양한 관점으로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이점을 지닌다. 예술 작품 속에는 저자가 의도한 세계, 작품이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세계, 해석자가 구성하는 세계, 역사적 또는 문화적 문맥 속에서 발현되는 세계 등 다양한 세계가 존재한다.<sup>13)</sup> 따라서 특정한 비평의 방법이 모든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다원적 요소가 더해지는 다원주의 해석론에서는 특정한 해석 방법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 다원예술은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 등의 다양한 관점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 다른 형태를 지닌 두 작품이 있을 경우 해석하는 기준이 같거나 지시하는 바가 같을 경우 두 작품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작품에 대한 기준과 지시하는 바가 다른 경우에 해당 작품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원예술의 해석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자체적으로 다양한 특이성을 지니고 있는 다원예술은 특정한 문장으로 귀결하기 어렵다. 최소화된 움직임, 일상적인 몸짓의 무용언어화, 해프닝이나 퍼포먼스의 우연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술작업, 시각 예술과의 결합, 관객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융·복합 작업<sup>14)</sup>들은 단순한 혼합이 아닌 학제 간 연구의 형태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융·복합적 접근을 핵심 개념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원예술의 다원적 지점이 무엇

10) 윤난지(1993),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월간미술』(1993년 2월호), pp.64-65.

11) 윤지현(2008), 다원예술과 한국의 무용공연-‘창작춤집단 가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15, p.87.

12) 김영희, 김재원, 김재현, 이종숙, 조경아(2014), 『한국춤사』(경기: 보고사), p.524.

13) 김진엽(2012), p.34.

14) 오선명(2017), 융복합 예술개념에서 무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담론-「소아페라(Soapé'ra)」, 「에스카톤(Eskaton)」, 「거리에서(En route)」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67(5), p.76.

인지를 살펴보고 그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르 구분에 있어 자율성을 지니며 기존에 존재하는 각 장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 심도 있는 접근을 이룸으로써 장르 간 융·복합 형태가 현재의 다원예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언급되는 학제적 예술은 각 장르 간 혹은 다양한 학문 간의 협업과정을 거친 예술 작품 자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작업 과정의 전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둘째, 수행자를 일반인으로 상정하여 의도적으로 전문성을 배제하는 등의 연출을 제외하고 작품을 안무 및 구성하는 제작자는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심도 있는 융·복합 작업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조건으로, 다원예술의 지향점이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예술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제작자에게 요구된다. 셋째, ‘다양하고 실험적이어야 한다’는 단일 방향의 정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다원예술에 있어 실험성과 다양성은 다원예술의 속성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포스트모던의 실험적 예술 경향과 함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시대 예술의 한 특징으로서 부각되고 있다.<sup>16)</sup>

넷째,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각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인정한다. 이는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수직적 형태의 고전적 가치체계가 아닌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렴하여 각 영역이 수평적 위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다섯째,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성향과 달리 작품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내용적 측면의 특징을 지닌다. 즉 다원예술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예술 작업을 통해 대중의 예술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작자와 관객 모두가 심화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예술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다원주의 미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 유입되면서 예술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어떻게 하나의 양식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다음 주면 추상표현주의자나 팝 아티스트, 아니면 사실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도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다.”<sup>19)</sup>라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발언을 통해 다원주의 미학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해체와 공존을 근거로 하는 다원주의적 경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예술은 다원적 접근을 이루며 효율적 표현과 소통이 더욱 수월해졌다. 예술 경향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예술에 대한 장르와 개념의 세분화로 인해 현재의 예술은 특정 장르로의 범주화가 무의미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원예술은 개념적·실질적 측면에서 단순한 혼합과 혼재가 아닌 심도 있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로 창출되고 있다. 즉 융·복합 예술이 융해의 과정이라면 다원예술은 승화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가는 창작 작업에 있어 단일적이었던 역할이 확장 및 변형될 가능성을 지닌다.

15) 전병삼 “학제 간 예술”에 관한 글, (윤지현(2012), 세계화 시대 한국 춤의 경계와 다원예술의 탈경계성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p.9 재인용).

16) 윤지현(2012), 세계화 시대 한국 춤의 경계와 다원예술의 탈경계성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p.1.

17) 김진엽(2012), pp.100-104.

18) 우주희(2007), pp.12-18.

19) Arthur C. Danto(2014), 『무엇이 예술인가』, 김한영(역)(서울: 은행나무, 2015).

### III. 다원예술 작품에 나타난 특성

본 장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표된 다양한 다원예술 작품 중 무용적 특성이 두드러진 세 작품을 선정하여 각 작품에 나타난 다원예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8년 다원예술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안느 테레사 드 케이크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ker)의 작품 「바이올린 페이즈」(초연, 1981)는 미국의 미니멀리스트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의 음악<sup>20)</sup>에 맞춰 안무된 작품이다. 이는 안느 테레사의 뉴욕대학교 유학시절 안무되어 1981년 4월 뉴욕에서 단독으로 초연되었고 이후 발표된 세 개의 작품과 함께, 1982년 「파제, 스티브 라이히의 음악을 위한 네 가지 움직임(Fase, four movements to the music of Steve Reich)」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바이올린 페이즈」는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초청되어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고 국내의 인지도 있는 다원예술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21)</sup>

같은 해 다원예술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보슈라 위즈겐(Bouchra Ouizguen)의 작품 「마담 플라자」(초연, 2008)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카바레의 실제 이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곳에서 활동하는 ‘아이타(aita)’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고통을 음악 혹은 시적으로 표현하는 모로코의 전통 명인이다. 작품에서는 감각적인 목소리와 강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과거의 아이타와 달리,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며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오늘날의 아이타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적 시선 그리고 남성적인 관점으로 제단된 여성들의 세계와 대면하여, 예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다.<sup>22)</sup> 작품에 출연한 인물들은 모로코의 나이트 클럽이나 카바레 등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아이타들로 구성되었으며,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타 가수들은 몸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후두음 소리, 비명, 흥얼거림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요소의 대립과 논쟁의 과정을 무대 위에 그려냈다.<sup>23)</sup>

2019년 다원예술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유하 발케이파(Juha Valkeapää)와 타이토(Taito Hoffrén)의 협업 작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초연, 2010)은 실제 공연에서 수행되던 보편적 창작 행위나 퍼포밍을 최소화하고 탈피하고자 시도된 작품이다. 그들은 극장의 공간이 아닌 미술관 잔디밭의 텐트로 관객들을 초대하여 현장에서 만든 커피와 팬케이크를 제공하였다. 발케이파와 타이토는 흔들의자에 앉아 관객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로 기록해 온 일기장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을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실제로 기록해 온 일기장을 낭독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작품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것의 공연, 날것의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일시적인 모임’을 실현하기 위해 한 작품을 구성하는 보편적 방식인 인위적 텍스트, 연기 수행을 탈피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기록물을 읽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sup>24)</sup>

20) 1967년 스티브 라이히에 의해 발표된 「바이올린 페이즈(Violin Phase)」는 특정한 작곡 기법으로 작곡된 음악이다. 안느 테레사는 이 음악의 이름을 차용하여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21) “미니멀리즘 현대무용 대가 안느 테레사, 국현서 공연한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78228>, 2019. 12. 1.>.

22) “보슈라 위즈겐: 마담 플라자”, 『아트바바』, <<https://www.artbava.com/exhibit/%EB%B3%B4%EC%8A%88%EB%9D%BC-%EC%9C%84%EC%A6%88%EA%B2%90-%EB%A7%88%EB%8B%B4-%ED%94%8C%EB%9D%BC%EC%9E%90/>, 2019. 11. 11.>.

23) “새벽 네 시, 모로코 카바레의 속살 <다원예술: 마담 플라자>”, 『MMCA 뉴스레터』, <<https://www.mmca.go.kr/pr/blog-Detail.do?bId=201808200000106>, 2019. 11. 11.>.

24) “다원예술- 유하 발케이파, 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MMCA 뉴스레터』,

## 1. 안느 테레사의 작품 「바이올린 페이지즈」



〈그림 1〉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 「바이올린 페이지즈」(2018), 국립현대미술관.

벨기에 출신의 안무가 테레사는 로사스(Rosas)무용단의 안무가로 반복을 통한 ‘무용의 미니멀리즘’ 안무기법을 확립한 인물이다. 지난 30년 무용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안무가로 손꼽히는 그녀는, 춤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초기부터 여러 시대에 이르는 음악의 구조와 악보의 양식을 분석하고 이를 무용과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sup>25)</sup>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탐구에 집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하학, 숫자 패턴, 자연 세계, 사회 구조 등의 변화를 공간에 그려냈다. 또한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요소인 절제와 반복을 안무의 기법으로 활용하여, 포스트모던댄스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을 자신의 안무 방식으로 확립시키며 그녀만의 예술세계를 이어오고 있다.<sup>26)</sup>

작품 「바이올린 페이지즈」는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반복과 절제의 움직임에 통해 진행되었다. 화려한 테크닉 없이 공간에 나타난 움직임은 기형학적 패턴으로 공연장 바닥에 그려졌으며 안무가의 철학적 사유를 담아냈다.

그녀는 선율이 반복·중첩되거나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페이지 쉬프팅 기법을 활용하는 등 작곡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무용과 접목하였다. 특히 여러 번 녹음된 바이올린 연주곡의 중첩과 충돌을 움직임의 반복과 바닥에 그려지는 기하학의 형태로써 나타냈다.<sup>27)</sup>

작품에서 무용수는 움직임의 패턴을 쌓아가며 종종 음악과 움직임의 박자를 일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는 음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능한 작업으로 “무용작업을 하는 데 음악은 언제나 첫 번째 파트너…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초안이 되는 요소”<sup>28)</sup>라고 언급하며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녀의 독특한 안무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그녀는 지름과 원형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작품에 녹여내어 다양한 변주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통해 안무가는 심도 있는 접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즉 탐구의 과정을 통해 융·복합의 확장을 이룬 이 작품은 각 장르가 혼합되는 융해의 과정에서 승화의 과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장르 구분의 자율성을 지니며 각 장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다원예술적 특성을 지닌다.

〈<https://www.mmca.go.kr/pr/cultureDetail.do?edId=201908200001904>, 2019. 11. 12.〉.

25) 이은서(2018. 3. 27.), “‘세계적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 4월 국립현대미술관 공연 열린다”,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47>, 2019. 11. 10.〉.

26) 서은영(2018. 4. 3.), “이리 한 발짝, 저리 한 발짝...춤추는 몸짓마다 피어난 ‘삶’”, 『서울경제』문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42KKN7Z>, 2019. 11. 10.〉.

27) 작가와의 대화(2018. 4. 2.), 국립현대미술관.

28) 김정선(2005. 4. 15.), “음악은 나의 작품에서 출발점” 로사스 무용단 안무가 안느 테레사 기자회견,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1896909>, 2019.11.9.〉.

테레사는 약 300회에 이르는 공연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관객과 소통을 이루었다.<sup>29)</sup> 또한 뉴욕 현대 미술관(MoMA)과 런던 테이트모던(Tate Modern) 등 기존의 무용극장을 벗어난 다른 공간에서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자연광’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 대하여 그녀는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극장과는 다른 자연광을 통해 관객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더욱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디테일을 관객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라이히의 음악이 매우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 「바이올린 페이즈」는 장르 내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다원예술적 특성을 지니며 공연장소 및 환경 등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원예술적 요소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무용, 음악, 미술, 수학 등의 각 장르들은 공연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장르의 예술로 창출되었다. 즉 단순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아닌 철저한 음악 분석과 함께 다리의 폭이 그려내는 방향·각도를 연구하여 독특한 예술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는 한 장르만의 가치를 위시하지 않고 각 장르를 하나의 작품으로 녹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각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인정하는 다원예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대부분 회전을 변형시킨 형태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 움직임에 대하여 테레사는 세계 어디에서나 무용의 원형이 되는 기본 동작이자 가장 단순하면서 기초가 되는 움직임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작품에 사용한 움직임의 의미에 대하여 움직임 언어가 굉장히 단순하며 일반인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동작이었다고 밝혔다.<sup>30)</sup> 이는 그녀가 추구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작품에 내포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자 했던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화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예술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다원예술의 특성과 부합하다.

## 2. 보슈라 위즈겐의 작품 「마담 플라자」

모로코 출신의 안무가 보슈라 위즈겐(Bouchra Ouizguen)은 아나니아(Anania) 무용단의 창립자이자 안무가로, 2008년 작품 「마담 플라자」를 발표하면서 세계무대에 등장했다. 관객을 응시하던 무용수들은 점차 느릿하면서도 절제된, 열정적이면서도 고통이 배인 듯 한 움직임으로 표현을 발전시켰으며, 경건하게 기도하거나 격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강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표출했다. 안무가 보슈라 위즈겐은 이 작품을 안무하는 과정에 있어 무용수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안무를 미리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7~8개월 간 공연자들 앞에서 저는 춤을 추지 않았죠. 제 동작을 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이타 가수들의 움직임, 그 자체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공연을 해왔던 분들이다 보니 무용수들과 많은 대화를 필요로 했고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더욱 파고들기 위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들은 고통, 슬픔의 정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29) 작가와의 대화(2018. 4. 2.), 국립현대미술관.

30) 앞의 글.

사랑이라고 답했어요. 이 공연은 아이타 가수들의 이런 내면을 반영하여 생겨난 ‘움직임’ 같습니다.<sup>31)</sup>

전통을 벗어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던 모로코에서 위즈겐은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탐구했다. 아이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위해 그녀는 수개월 동안 아이타 가수들과 소통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접근은 장르 구분에 있어 자율성을 지니며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다원예술의 특성과 부합하다.

「마담 플라자」는 단순히 장르 간 혼종의 작업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술 개념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작품화한 것으로,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을 인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은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이 아닌 즉흥적 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무용수들은 온 몸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을 압도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미(美)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전복시켰다. 이는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각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인정하며 진리나 미의 개념이 수평적 위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다원예술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2〉 보슈라 위즈겐, 「마담 플라자」(2018),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이 진행되는 60분 동안 무용수들은 객석을 등지고 앉거나 객석을 거꾸로 뒤집어 건너보는 등 보편적인 공연예술의 형태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자막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텍스트를 탈락시켰다.<sup>32)</sup> 이러한 구성을 통해 무용수의 움직임은 오로지 날 것의 형태로 관객의 시선과 접촉했다. 또한 관객은 관습적으로 여겨지던 무용수의 발화 행위, 신체, 작품의 스토리, 아이타, 여성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슈라 위즈겐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부분 프랑스로 구성된 모로코 무용의 용어적 한계를 인지하여 기존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써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고 밝혔다.<sup>33)</sup>

이러한 점을 통해 작품에는 대중과 함께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적 측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대중의 예술에 대한 접근을 한 차원 심화시키고 안무가와 관객 모두가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예술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적 특성이 나타난다.

31) “새벽 네 시, 모로코 카바레의 속살 <다원예술: 마담 플라자>”, 『MMCA 뉴스레터』, <<https://www.mmca.go.kr/pr/blog/Detail.do?bId=201808200000106>, 2019. 11. 11.>.

32) 이경미(2018. 8. 16.), “‘무용’과 ‘여성’에 반(反)하다-마담 플라자 보슈라 위즈겐, 국립현대미술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un8&logNo=221339952176&parentCategoryNo=&categoryNo=3&viewDate=&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2019. 11. 11.>.

33) 작가와의 대화(2018. 8. 11.), 국립현대미술관.

### 3. 유하 발케아파와 타이토 호프렌의 작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그림 3〉 유하 발케아파-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2019), 국립현대미술관.

유하 발케아파(Juha Valkeapää)는 소리, 존재, 공간, 즉흥의 요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적 예술 작업을 시도하는 핀란드 출신의 아티스트로, 음악가 타이토 호프렌(Taito Hoffrén)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작품을 기획하였다. 두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기록한 일기를 낭독하며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발케아파와 호프렌에게 있어 작품이 진행되는 무대는 삶의 공간이 되었으며 관객은 손님, 공연은 모임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이는 일시적인 형태로 형성되었다.<sup>34)</sup>

공연예술에 대한 두 작가의 실험적 접근을 통해 작품은 일상과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났다. 즉 이 작품은 예술 작품에 대한 장르 구분의 개념을 초월하여 각 장르의 경계가 흐려지는 탈장르적 경향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르 구분의 자율성을 지니는 동시에 장르 간 융·복합 형태가 확장된 다원예술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수 년 동안 삶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며 일상으로의 예술이라는 연출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인문학적 접근이 수반된 작업으로, 단순히 장르를 혼합하기 위한 실험적 작품이 아닌 작가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한 실험적 융·복합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발케아파와 호프렌은 2005년 이 작업을 계획하여 2010년 핀란드 헬싱키의 한 공원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간과 환경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텐트와 연결되어있는 자동차는 작품을 싣고 옮기기 위한 이동수단의 역할 뿐 아니라, 작품에 사용되는 커피와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부엌, 화장실, 탈의실, 침실 등의 용도로도 활용된다.<sup>35)</sup> 작가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의 의도적 연출을 통해 보편적인 공연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 자본주의 사회와 예술장르 안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생산과 소비의 패턴에 집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날 것의 공연’, ‘날 것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진정하고 따뜻한 우호적 관계를 창출해내고자 하였다.<sup>36)</sup> 이러한 실험적 접근은 일반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측면에 있어 대중성을 지니며, 삶이라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특정한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 작품은, 작품 안에 인문학·퍼포먼스·사운드·일상 등의 요소들이

34) 김인규(2019.9.5.),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광장’전 등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698>, 2019. 11. 12.>.

35) 유하 발케아파 공식 홈페이지, “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Esityksestä”, <[http://tenjourneys.aania.fi/index\\_fi.html](http://tenjourneys.aania.fi/index_fi.html), 2019. 11. 12.>.

36) “다원예술-유하 발케아파, 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MMCA 뉴스레터』, <<https://www.mmca.go.kr/pr/cultureDetail.do?edId=201908200001904>, 2019. 11. 13.>.

다양하게 담겨있다. 두 작가들은 침묵을 유지하여 관객의 호흡과 개인적인 생각들로 공간을 채우거나 때로는 영상과 텍스트를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등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공간을 채워나갔다. 특히 무용적 특성이 두드러졌던 기존의 다원예술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다원예술적 특성이 극대화 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정 장르와의 융·복합 형태가 아닌 일상과의 결합을 시도한 탈 장르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들을 기반으로, 두 작가는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반한 여러 영역의 가치들을 수평적 위치에서 인정하며 작품을 연출하였다. 따라서 다원예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18년과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원예술 시리즈에 소개된 세 편의 작품을 통해 다원예술 작품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작품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은 장르 구분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구분의 경계를 흐려지게 한다는 특성을 지녔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났고, 특정 장르와의 융·복합이 아닌 일상과의 결합을 통해 탈 장르적 경향을 보였다.

각 작품을 안무 및 제작한 작가들은 꾸준한 예술작업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오고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국에 초청되어 지속적인 예술 작업을 이루고 있다. 작품의 구성에 있어 작가들은 일회성의 발표를 위한 작업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고 연구하는 형태로써 타 장르와의 융·복합을 이루었다.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작가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가치들을 수평적 위치에서 바라보며 예술, 삶,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개념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를 대중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 IV. 결론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에 있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의 작품 분석은 한국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헤아려 보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정형화된 예술 작품들은 더욱 다양한 장르와 갈래로 세분화되고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다원예술 개념의 이해를 위해 다원주의 미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들을 고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다원예술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립 현대미술관의 ‘다원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중에 소개된 다원예술 작품 「바이올린 페이지즈」, 「마담 플라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원예술 작품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론은, 다원예술은 심도 있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융·복합의 확장을 이루고 있으며 탈 장르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장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 각 장르가 융합되고 승화되어 장르의 해체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있어 다원예술 작품은 특정 장르의 요소가 두드러질 수는 있으나 ‘무용작품’, ‘음악작품’, ‘미술작품’ 등 한 가지의 예술 장르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원예술의 토대가 되는 다원주의의 특성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 귀결될 수 없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원예술 작품에서 무용, 음악, 미술, 일상 등에 대한 예술적 가치는 수평적 위치에서 인정되며 각각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융·복합의 확장을 위해 안무가·작가는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열린 방향으로의 실험적 형태로 나타났다. 작품은 미술관, 극장, 광장과 같은 대중적 공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대중성은,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적 특성과 함께 나타났다.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의 특성은 각 작품마다 다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에서는 다원예술적 특성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정 장르와의 결합 개념이 아닌, 예술과 일상의 결합을 통해 융·복합의 확장을 이루며 탈 장르적 경향을 보였다.

장르 간 융·복합적 접근으로 인해 현 시대에서의 예술작품은 기존의 개념으로 구분하거나 특정한 장르로 분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예술과 일상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확장되었다. 즉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해 장르가 구분되고 나뉘던 예술의 한 패러다임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현 시대를 ‘예술의 종말’이라는 도발적인 수사로서 표현한 아서 단토의 주장에 따라, 다원주의 예술 시대에서의 예술 현상은 제도와 형식을 넘어서 더욱 폭넓고 자유롭게 다양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다원예술을 연구하는 작업은 국내 예술의 현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다원예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래할 예술에 대한 분석의 척도를 제공하는 역할로써 국내 예술계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 참고문헌

- 김영희, 김채원, 김채현, 이종숙, 조경아(2014). 『한국춤사』. 경기: 보고사.
- 김진엽(2012). 『다원주의 미학-자유로운 예술, 열린 비평』. 서울: 책세상.
- 미학대계간행회(2007). 『미학대계 제3권-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우주희(2007).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존 스튜어트 밀(1859). 『자유론』. 서병훈(역). 서울: 책세상. 2005.
- Danto, A. C.(2014). 『무엇이 예술인가』. 김한영(역). 서울: 은행나무. 2015.
- 신창호(2018).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상징적 의미 해석 : 이본노 레이너, 루신다 차일즈, 안나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 로이드 뉴슨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선명(2017). 융복합 예술개념에서 무용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담론 -「소아페라(Soapéra)」, 「에스카톤(Eskaton)」, 「거리에서(En route)」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7(5): 73-83.
- 윤지현(2008). 다원예술과 한국의 무용공연-‘창작춤집단 가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 15(0): 61-92.
- 윤지현(2012). 세계화 시대 한국 춤의 경계와 다원예술의 탈경계성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이준욱(2013). 현대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 안느테레사 케이르스마커의 작품 [Fase]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윤선(2015). 안네 테레사 데 케이르스메케르의 미니멀리즘적 작품에 나타난 무용과 음악의 관계 연구 : 《파세(Fase, 1982)》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숙, 남선희(2019). 무용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그룹 E.A.T.에 관한 연구-머스 커닝햄, 스티브 팩스톤, 트리샤 브라운의 작품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3(1): 187-205.
- Arthur C. Danto(2009). The End of Art: A Philosophical defence, *History and Theory*, 37(4): 127-143.
- 윤난지(1993).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월간미술』. (1993년 2월호).
- 김인규(2019. 9. 5.).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광장’전 등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698>, 2019. 11. 12.>.
- 김정선(2005. 4. 15.). “음악은 나의 작품에서 출발점” 로사스 무용단 안무가 안네 테레사 기자회견.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1896909>, 2019. 11. 9.>.
- 서은영(2018. 4. 3.). “이리 한 발짝, 저리 한 발짝...춤추는 몸짓마다 피어난 '삶'”. 『서울경제』문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42KKN7Z>, 2019. 11. 10.>.
- 유하 발케이파 공식 홈페이지. “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Esityksest”. <[http://tenjourneys.aania.fi/index\\_fi.html](http://tenjourneys.aania.fi/index_fi.html), 2019. 11. 12.>.
- 이경미(2018. 8. 16.). “무용’과 ‘여성’에 반(反)하다-마담 플라자 보슈라 위즈겐, 국립현대미술관”.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un8&logNo=221339952176&parentCategoryNo=&categoryNo=3&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2019. 11. 11.〉.
- 이은서(2018. 3. 27.). “"세계적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키, 4월 국립현대미술관 공연 열린다”.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47>, 2019. 11. 10.〉.
- “다원예술- 유하 발케아파, 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MMCA 뉴스레터』. 〈<https://www.mmca.go.kr/pr/cultureDetail.do?edId=201908200001904>, 2019. 11. 12.〉.
- “보슈라 위즈겐: 마담 플라자”. 『아트바바』. 〈<https://www.artbava.com/exhibit/%EB%B3%B4%EC%8A%88%EB%9D%BC-%EC%9C%84%EC%A6%88%EA%B2%90-%EB%A7%88%EB%8B%B4-%ED%94%8C%EB%9D%BC%EC%9E%90/>, 2019. 11. 11.〉.
- “새벽 네 시, 모로코 카바레의 속살 〈다원예술: 마담 플라자〉”. 『MMCA 뉴스레터』. 〈<https://www.mmca.go.kr/pr/blogDetail.do?bId=201808200000106>, 2019. 11. 11.〉.
- 『원불교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3573&cid=50765&categoryId=50778>, 2019. 11. 1.〉.
- 『철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892&cid=41978&categoryId=41985>, 2019. 11. 1.〉.

논문투고일 2019. 11. 15.  
 심사일 2019. 11. 18.  
 심사완료일 2019. 12. 15.

##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lural Art Work

-Focusing on *Violin Phase*, *Madame Plaza* and *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 -

**Nam, SunHee\*·Cho, EunSook\*\***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form of art is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the data for the human and objects are collected and utilized. Focusing on this trend,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distinct features of pluralism and plural art and analyzes the art works, *Violin Phase*(2018) by Anne Teresa De Keersmaeker, *Madame Plaza*(2018) by Bouchra Ouizguen, and *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2019) by collaborated work by Juha Valkeapää and Taito Hoffrén as plural art a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Plural art is expanding its fields through in-dep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lso, each genre composing plural art works is merged and transcended one, which leads to the dissolution of the genre. Through this discuss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unt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art.

**Keywords:** Pluralism(다원주의), Plural art work(다원예술 작품), Violin phase(바이올린 페이즈), Madame plaza(마담 플라자), 10 matkaa sinne missä mitään ei tapahdu(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 번의 여행)